



제100회 강공회 기념 종령 유서문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뜻을 되새기자



종령 법공 대종사

원정 대성사께서는 스승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정령정직하고 스승을 잘 받들어 행하면 다른 자격이 여간 부족하더라도 교화가 잘될 것이다. 종단은 민주주의나 어떠한 법의 조문보다도 부처님의 교시한 법과 계율에 입각하여 사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흥왕함을 기할 수가 있다.”

“스승은 현실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남의 과실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단결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내 자신이 스승과 윗사람을 경멸하고 대항하면서 어찌 나의 아랫사람과 교도들이 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인과법을 무시하는 사건이니 내가 스승을 경망할 것이 곧 반영되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스승은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을 위하여 자기형편이나 자기교화에만 집착하기보다도 종단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세우려는 대아적인 위치에서 현재 정화에 사명감을 가지고 퇴전 없는 정진으로써 종단의 유구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을 거두어서, 우리 총지중의 입교개종의 정신이 중외에 빛나고 세계만방에 불일이 증휘하도록 하는데 훌륭한 역군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강공회 100회를 맞이하여 다 함께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의 뜻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지은덕과 종조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용맹정진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종령 법공 합장

통리원장 우인 정사, 한일불교협 부회장에 종단협에 이어 명실공히 한국불교 지도자 종단으로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제43차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인준됐다. 지난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우인 정사가 인준안 결의를 통해 부회장으로 결정되었음을 밝혔다.

우인 정사는 부회장 수락 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증진을 위해 협회와

종단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한일불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불교총지중은 총기 46년(2017년) 제18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종단협 부회장 종단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우인 정사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까지 맡게 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불교대각종 부

회장 임회의 건 및 협의회 각 종단 임원 스님들을 부회장과 이사로 변경하는 임원 변경안 결의와 함께 2023년 예산과 사업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6월 12~14일,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전북 금산사) △7월 말 8월 초, 한일 중고생교류대회(일본) △11월, 제15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2박 3일, 일본) △조선왕조 원당 월궁전(月宮殿)으로 추정되는 ‘관월당’의 한국으로 이전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봉환.

튀르키예 구호 성금 3천 만원 전달 전국 사원 사부대중 1천여 명 동참

종단이 지난달 21일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3천만 원을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다. 전국 사원의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모금된 이번 성금은 종단에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

제20대 통리원 집행부는 회의를 통해 지진 피해로 여념 없이 바쁜 튀르키예 대사관에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종조 원정 대성사

의 회사법에 관한 가르침에도 거스르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성금에 동참해주신 전국 스승님들과 교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다같이 마음을 모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튀르키예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심으로 서원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튀르키예 대사관 측에서도 유선을 통해 종단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종/조/법/어

보시를 행한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한 물건을 모르는 까닭에 그 공덕이 허공과 같아 한량이 없느니라

=지 면 안내

- 4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 5면 이달의 법문 / 묘원화 전수
- 9면 교도수행체험담3 / 오기순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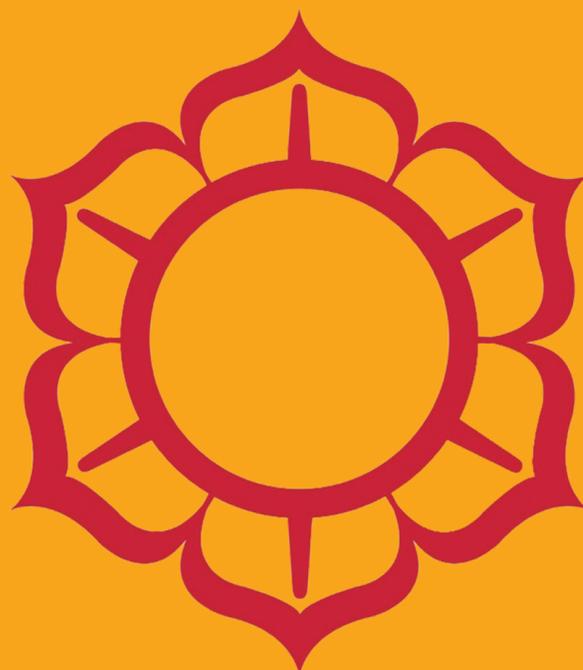
제100회 춘계 강공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_ 총기 52년 4월 19일(수)~20일(목) 1박2일

대상 _ 불교총지중 전 스승 | 장소 _ 본산 통리원



“새로운 제안이 많아야 발전할 수 있다”

총기 51년 정기 사무지도 감사 실시



지난해를 갈무리하는 ‘총기 51년 정기 사무지도 감사’가 지난달 3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여삼동 통리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무지도 감사는 사감원장 범일 정사를 비롯해 묘흥 전수(삼필사), 지현 전수(자석사), 법선 정사(법성사), 서강 정사(실지사) 등 사감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첫날 오후 2시 불공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후 5시 회향했다. 제20대 통리원 집행부와 종무원이 참석한 시작 회의에서 범일 정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감사는 지적하는 감사가 아니라 지도

하는 감사다.”고 정의하고 “평상시 본업에 임하듯 각 부서별 감사가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는 통리원과 유지재단, 복지재단 등 준비된 자료와 담당자 면담 등으로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예산운영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종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또 통리원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해 현실화 또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후 마무리 자리에서 범일 정사는 “올해 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모습으로 종단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애써달라.”고 당부하며, “새로운 제안이 많아야 발전할 수 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사감위원들은 총기 51년 정기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4월 18일에 열리는 중앙총회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재단, 강남구청 감사장 수여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지난달 15일 강남구청 본관에서 진행된 ‘2023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자 감사장 수여식’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강남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록경 정사가 참석하여 재단을 대표해 수여했다. 이밖에도 개인 및 기업 내빈 33명이 동참하여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2023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진행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모금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이러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주기적으로 동참하여 종단 소속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 앞으로 여러 차례 성금을 회사했다.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 가족에게 종단 소유 스승 숙소(여삼동 소재, 삼원 마리내 타운)를 임시 거처로 내주며 불교계 최초로 난민 직접 지원에 앞장섰다.

록경 정사는 이날 감사장 수여식에서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지역사회에 불교의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및 복지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고통 받는 이웃과 생활이 어려운 교도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상미 기자

법수원 지수 49재 법황사에서 봉행

23일, 전국 스승 및 교도 동참 왕생성불 발원



불교총지종에서 일평생 중생교화에 매진하다 지난 2월 3일 세수 86세, 법납 41세로 원적에 든 법수원 지수 49재가 지난달 23일 고인이 생전 가장 오랜 기간 전법 활동을 해온 도량인 광주 법황사(주교: 인선 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전국 스승을 비롯해 법황사 교도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인선 정사의 집공으로 영식의 극락왕생과 구경성불을 발원했다.

유가족 대표로 윤명진 교도는 인사말에서 “저희들이 어머니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보며 대신 전하려 합니다.”며, “보살님들,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전해 고인을 추선하는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법수원 지수는 2002년 사감원장을 비롯한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하며 종단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광주 법황사의 초대 주교로서 교도들과 함께 한결같은 기도정진으로 법황사를 호남지역 밀법포교의 중심지이자 진언밀교도량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다. 광주 법황사 김상미 기자

사회복지재단 제1차 정기 이사회

법인 정관 일부 개정, 2022년도 심의 마무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2023년 제1차 정기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본산 통리원에서 열렸다. 이사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이사 7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의 지원 및 위탁운영사업,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의 지원 및 위탁운영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정관의 일부와 산하시설 운영에 관한 개정을 승인했다.

또 3월 17일자로 세곡다함께키움센터 신임 센터장에 김경희 씨를 임명하는데 의결했다. 이밖에도 2022년도 재단사무국 결산과 2023년도 재단사무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2년도 산하시설인 석관실버복지센터와 세곡키움센터의 결산도 심의 후 원안대로 확정했다.

세곡다함께키움센터 신임 센터장 임명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우인 정사는 지난달 24일 재단 산하 세곡다함께키움센터 김경희 신임 센터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부처님의 자비행으로 센터운영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사 록경 정사, 김경희 센터장, 이사장 우인 정사.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불기 2567년 봉축 표어 선정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Peace of the Mind, World of the Buddha)’가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지난달 21일 불기 2567년 봉축표어를 이같이 발표하고, 코로나19로 그간 불안한 일상을 견뎌온 국민들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은 26일 광화문 광장, 연등회는 5월 20일 동국대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행렬이 이어진다.

한편 오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는 봉축 점등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종단에서는 교주 비로자나부처님을 4m 규모의 장엄등을 새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선보일 행렬등은 교도들이 동참해 전국 사원에서 제작될 예정이다.



총지사 록경 정사

내마음의 등불

세상에 우연은 없다

심지 않고 열매를 따려는 것과 꽃이 없는데 나비를 청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것은 없느니라. <종조법설집 잠언편>

BTN불교TV 제29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제29기 대차대조표 승인, 신임 이사에 갈수 스님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제29기 정기 주주총회가 이사 총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대표이사 회장 성우 스님, 대표이사 구본일 사장과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본사 1층 무상사 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9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과 사내 이사 변경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상정,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신임 이사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갈수 스님이 선임되었으며,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을 재선임했다.

성우 스님은 “뉴미디어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춰 방송포교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년 대상의 ‘시니어TV’의 매출확산과 ‘불국토상조’ 등 자회사 수익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BS불교방송 계묘년 첫 이사회 개최

새 이사에 월우 스님, 향성 스님 선임

BBS불교방송이 올해 첫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결산안을 승인하고 올해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 제118차 회의에서는 2022년 결산감사 보고 안건을 가결하고,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또 원종 스님과 금곡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이사로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설악산 신흥사 부주지 향성 스님을 선임하고 박기동 이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재적이사 22명 가운데 이사장 덕문 스님과 주경 스님 등 16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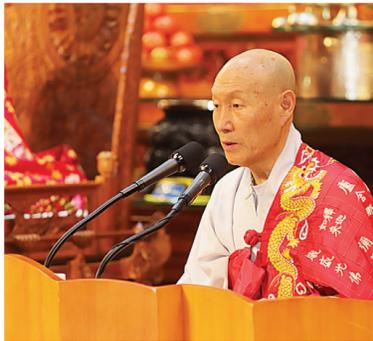
“화합과 수행으로 성불 향해 나아가자”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 덕수 스님 취임

대한불교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에 덕수 스님이 취임했다. 지난 3월 23일 오전 10시 당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 취임 법회에서 덕수 스님은 “부처님 법을 잘 믿고 실천하며, 화합과 수행으로 우리의 목표인 성불을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도록 힘쓰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무엇보다 화합과 질서로 지금 이 시기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주어진 일에 모두 책임을 다하며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니 마음을 닦아 성불

하자”고 말했다. 천태종은 무원 스님이 최근 건강상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3월 18일 덕수 스님을 후임 총무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4년이다.

덕수 스님은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과 불교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총무원 규정부장·교무부장·총무부장, 8·9·10·11·14대 종의회 의원 등 종단의 여러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최근에는 구인사 국제선원장과 종정 사서실장을 지냈다. 또 청주 명장사·



부산 삼광사와 광명사를 비롯한 종단 사찰의 주지직을 맡아 각종 불사와 전법 교화에 매진했으며,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이사·천태불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종단의 교학 발전에 힘썼다.

미래사회와 불교

지혜의눈

인공지능 발전으로 궤를 달리하는 수준의 세상 챗지피티의 알고리즘, 유식(唯識) 내용과 닮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으로 등장한 챗지피티(chatgpt)가 화제입니다. 이것은 연산처리장치인 GPU가 1초에 312조번의 실수 계산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챗지피티가 이전의 인공지능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정보를 사람이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작동하였는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과 같은 것은 인간의 능력을 한참 뛰어넘었다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내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챗지피티의 단계에 와서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서서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특히 의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한 개인의 의료 진료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궁금합니다.

인간의 인식작용은 눈, 귀, 코, 입, 몸의 감각기관이 각각 사물,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으로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러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내용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인식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섯 번째 인식 작용으로 의식(意識)을 드는데 이것은 대상에 대해 호오(好惡)의 감정을 일으키는 의식인 제7식 또는 말나식(末那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개 이 말나식이 에고 또는 자아(自我)라고 하는데,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선 어찌 보면 무의미한 내용까지도 인식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단계를 제8식 또는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곳으로 장식(藏識)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종자(種子)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여 8식에서 7식과 6식으로 그리고

다섯 개의 감각기관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외부의 대상이 감각기관을 거쳐 6식, 7식과 8식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섯 개의 감각기관인 오근(五根)이 그 인식대상인 오경(五境)과 작용하여 인식작용을 하는데 오근과 오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無常)한 것이기에 인식된 것만이 남게 됩니다. 이를 유식무경(唯識無境), 유식에서는 경(境), 즉 대상 내지는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모두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개개인의 취향과 개성으로 발현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런 과정을 거쳐 업(業)의 종자로 저장되는데 그 종자는 내 의지에 의해 취사선택한 것이어서 그것이 다음의 선택에 작용하게 됩니다. 즉 보(報)로 작용하게 됩니다. 업과 보는 이렇게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진행됩니다. 이 종자는 정보처럼 무형의 성질이어서 육체의 소멸과 상관없이 작용하는데,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의 발전과 그에 따른 철학의 변화과정은 20세기 중반까지의 체계와는 궤를 달리하는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우연히 불교 교리를 독학하면서 얻은 영성한 지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면서 어디에서 많이 본 논리라고 느꼈는데 후에 불교의 내용과 매우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식학은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김동화 박사님의 유식학 책을 보다가 어려워 포기하였는데 챗지피티의 내용을 마주하면서 참 신기하게 유식의 내용이 연상되었습니다. 이 글이 비록 거칠고 오류가 많지만 우리가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의 하나가 불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해탈의 길이라고 제시하신 수행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은색)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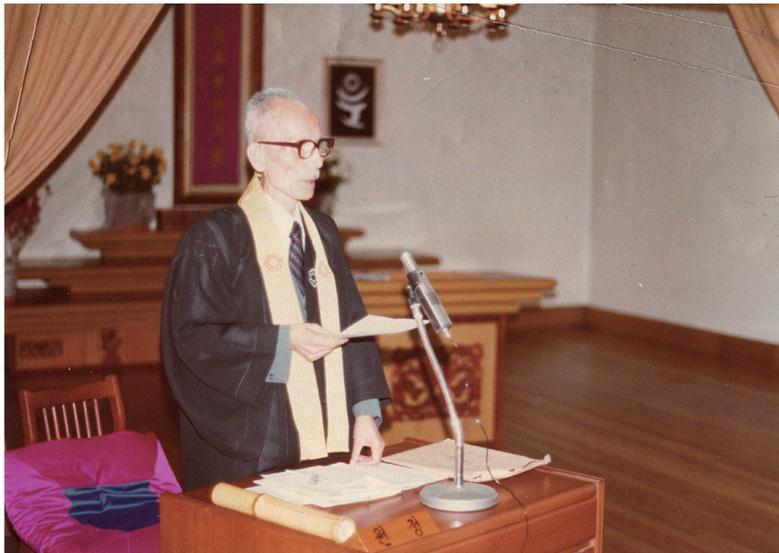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특경 정사의
총지 돋보기 (2)

총지종 강공회(상)



창종 초기 강공회에서 강설하고 계시는 종조 원정 대성사

참다운 스승이 되는 교육 불사의 장

강공회가 올해로 제100회를 맞이한다. 100회 강공회는 오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분산 총지사에서 열린다. 강공회는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씩 종단의 승직자들이 모두 모여 수행을 점검하고, 승단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등 종단 내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일찍이 총지종의 창종과 더불어 강공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전통으로 자리잡도록 하셨다. 창종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불사(教育佛事)에 종단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설교하시고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승단의 강공회였다. 종조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정사, 전수 및 종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 추 2기의 정기 강공회를 개최 한다.”고 선언하셨다. 종조님으로부터 시작된 강공회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첫 강공회는 창종 다음해인 총기 2년(1973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성복선교부 도량에서 3일간 개최됐다. 종단 강공회의 효시가 되는 셈이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99회의 강공회가 열렸는데, 다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로 총기 49년 춘계강공회가 열리지 못하고 순연되었다. 당시 신천지 발 대규모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종교 시설을 비롯한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이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했으며, 모든

학교가 4월 중순이 지나서야 결국 온라인 입학식으로 학기가 시작됐던 시기였다.

강공회를 통하여 스승들이 교화에 필요한 교리를 충분히 습득하고 스승으로서의 행동강령을 준수 하도록 교육했다. 즉 강공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스승들이 불교교리와 총지종의 종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교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승직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주기적인 각성을 통하여 스승이 참다운 스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참된 교육의 장이었다.

특히 창종시에는 종단의 의식과 의궤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사원의 스승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화 경험담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교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제1회 춘계강공회가 열린 성복선교부는 오늘날 실지사(悉地寺)의 전신(前身)으로 당시 총지종의 총본산 역할을 하는 도량이었다. 1973년 6월 27일 자 종단 교사(敎史)에 따르면 “제1회 강공회(講工會) 개최, 總紀二年 癸丑(1973) 6월 27日 水 성복선교부 도량에서 6월 29일까지 3일 간 강공회를 개최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 때 전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6월 27일 전국 교역자 및 교무를 총망라한 ‘전국총회’가 열렸으며, 제1회 종의회, 제1회 중앙종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다음호에 이어>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스승의 사명

스승의 사명(使命)

스승은 매일 교도(敎徒)와 접촉(接觸)하는 교화(敎化)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명이 중차대(重且大)하고 따라서 종단(宗團)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함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스승은 세간고락(世間苦樂)에 초연(超然)하여야 하며 먼저 자기의 인생관(人生觀)이 확립(確立)되고 그러한 지표(指標)로서 생활하는데 그 스승의 인격(人格)이 완성되고 따라서 이해(利害)의 영욕(榮辱)에도 굴복하거나 동요(動搖)되지 않는 지조(志操) 있고 정의(正義)에 투철(透徹)한 모범적(模範的)인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교도들은 그 스승을 신뢰(信賴)하고 존경함으로서 복전(福田)이 될 것이요, 일반이 흠모(欽慕)하여 교화(敎化)는 날마다 흥왕(興旺)하고 부처님과 일체(一切)증생이 다 가호(加護)할 것이다. 세속(世俗) 사람들이라도 수양(修養) 있는 지성인(知性人)이라면 인생관이 서있고 생의 가치를 확립코자 하거늘 하물며 증생을 제도(濟度)하는 성직자(聖職者)로서 이러한 주관(主觀)이 없이 어찌 남을 제도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인류평화를 위한 지도자로 자처(自處)할 수 있겠는가. 대승보살(大乘菩薩)은 결코 관념적(觀念的)인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그것을 소재(素材)로 인격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오상성신(五相成身)의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청렴정직(淸廉正直)하고 스승을 잘 받들어 행하면 다른 자격이 여간 부족하더라도 교화가 잘 될 것이다. 종단은 민주주의나 어떠한 법의 조문(條文)보다

도 부처님이 교시(敎示)한 법과 계율(戒律)에 입각하여 사제도(師第道)를 확립하는데 그 흥왕(興旺)함을 기할 수가 있다. 헌신적(獻身的)인 책임(責任)과 도의적인 책임을 저야하고 남의 과실을 지적(指摘)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화합(和合)과 단결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내 자신이 스승과 윗사람을 경멸(輕蔑)하고 대항(對抗)하면서 어찌 아랫사람과 교도들이 나의 뜻에 순종(順從)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과법(因果法)을 무시하는 사견(邪見)이니 내가 스승을 경만(輕慢)할 것이 곧 반영(反映)되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 사회 또는 한 교단(敎團)이 흥왕하려면 그 지도자 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어야하는 것은 고금(古今)이 일반(一般)이므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은 무상(無常)하나 법은 멸하지 아니하고, 현실은 전변(轉變)하나 진리(眞理)는 영원하며, 재물은 수유(須臾)에 없어지는 것이지만 명예와 인격과 덕망(德望)은 영원불멸(永遠不滅)하는 것이니, 이것을 잘 체득(體得)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을 위하고 자기형편이나 자기교화(自己敎化)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종단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세워가는 대아적(大我的)인 위치에서 현세정화(現世淨化)에 사명감(使命感)을 가지고 퇴전없는 정진으로서 종단의 유구(悠久)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結實)을 거두어서 우리 총지종(總指宗)의 입교개종(立敎開宗)의 정신이 중외(中外)에 빛나고 세계만방에 불일(佛日)이 증휘(增輝)하도록 하는데 훌륭한 역군(役軍)이 될 것을 서원(誓願)하여 마지않습니다.

인생의 고락에서 해탈의 열매 맺는 대승보살행 강조
일상에서 겪는 번뇌 망상을 깨달음 씨앗 삼으라 당부

불교총지종 ‘입교개종의 정신’에 이어 ‘스승의 사명’을 밝힌 것은 교화와 종단 발전의 근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흘러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간절하면서도 간곡하여 자못 숙연해진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으라 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하는 법이다. 마음에 커다란 울림이 일거나 정신이 번쩍 나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건 대부분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다.

스승 없이 깨우칠 수 있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었다. 우리에게 이미 부처님이 계시고 여러 훌륭한 선지식들이 계시니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 부처님

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과 도반은 불도의 길에 있어 전부라고 말이다. 지혜를 얻고 감화를 받고 마침내 발심 수행하여 성도하는 데 있어 스승은 절대적인 존재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도 있지만 순수한 불심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악지식도 수도룩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 신심 나게 절에 다니다가도 정작 스님이나 불자들에게 실망해 발길을 돌리거나 등져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불연을 맺어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도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부처님께 전법을 부촉 받은 진리의 사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불자라면 다 같이 돌아볼 일이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총지종의 스승에게 증생의 귀의처이자 복밭으로서 바르고 확

고한 철학과 인격과 덕망을 갖춘 것을 요청하셨다. 깨달음을 이루고 증생을 제도하는 것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니 인생의 고락에서 해탈의 열매를 맺는 대승보살행을 강조하셨다. 보리심과 금강심으로 부처를 이루겠다는 오상성신의 서원을 분명히 하고 일상에서 겪는 번뇌와 망상들을 깨달음의 씨앗으로 삼으라 하셨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에 입각하되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지켜 화합하고 공익과 종단 전체의 이익을 우선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함께 머무르고, 다툼이 없으며,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맞추고, 계를 같이 지키고, 보시물을 똑같이 나누는 청정승가의 육화합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스승과 교도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여 총지종의 정신을 빛내달라는 지극한 당부의 말씀을 모두가 가슴에 새기면 좋겠다.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이달의 법문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을 줄 알면 제천(諸天)들이 다 사람을 대신하여 기뻐하리니 마땅히 하심(下心)하여 부드럽고 겸손할 것이며, 마음 가는 대로 따르지 말 것이다. 마음의 행(行)은 못하는 일이 없으니, 도(道)를 얻는 것 또한 마음이다. 마음이 하늘을 만들고, 마음이 사람을 만들고, 귀신도 만들고, 축생도 지옥도 다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불교총론 p.70 13. 반니원경』

”

2월 19일부터 시작된 상반기 49일 불공이 막바지입니다. 회향을 한 주 남겨 놓은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후련합니까? 들뜸합니까? 다양하고 많은 느낌과 생각들이 알아질 겁니다.

지금 느끼는 이 느낌들에 따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름 지어집니다. 죽고 싶을 만큼 몸이 아픈 사람은 지옥 속에 살 것이고, 거식증에 걸린 사람은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아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소승 중인 사람은 아수라 세계에,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축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지극히 만족스럽다면 하늘 세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분별로 지옥과 극락이 결정됩니다. 육도윤회(六道輪廻)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인지되는 상태

앞의 마음과 뒤에 일어나는 마음은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초목과 같아서 각각 제대로 흘러가되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은 마음은 손녀의 등장으로 이미 떠나 갔는데 중생들은 구태여 다시 생각을 불러 일으켜 아수라 지옥 속으로 스스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다시 일으키는 이 생각이 번뇌 망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손녀와의 극락세계입니까? 미운 사람과 함께하는 아수라 세계입니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알 아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르는데 무엇을 선택한다는 겁니까? 우습게도 그동안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해 왔습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하던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염송(念誦)을 바르게 하는 것이 팔정도의 정념(正念)입니다. 팔정도는 사성제에서 고통을 소멸시키는 실천 방법입니다. 염(念)을 팔리어로 사띠(sati)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옮긴 것이 ‘마음챙김’입니다. 그래서 진언을 염송하면서 행자의 몸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 하는 것이 바른 수행(정념)입니다. ‘마음챙김’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에 통증이 느껴지는지, 열감이 느껴지는지, 생각이 일어나는지 등등 마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의도가 먼저 알아집니다. 그래서 의도를 얻이라고 합니다. 의도를 보다 보면 괴로움을 보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욕을



벽룡사 묘원화 전수

육도윤회는 지금 이 순간 인지되는 상태이며 내가 처한 세계 바른 수행으로 마음에 탐진치 줄이고 현실 겸손히 수용해야

그대라고 내가 처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하늘, 사람, 귀신, 축생과 지옥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지금 미운 사람과 다투고 있다면 상대를 더 괴롭히고 싶고,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아수라와 같은 마음이 계속, 평생 존재합니까? 그때 돌베개 손녀가 아장아장 걸어와 고사리손을 내밀고 웃는다면, 아이가 넘어질세라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게 됩니다. 웃는 아이와 눈을 맞추는 마음은 어떨까요? 반갑고 환희한 마음, 아이를 어여뻐하는 기쁨의 마음일 겁니다. 아수라 세계가 손녀를 만나면서 사라지고 극락세계로 변환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쌓여 드러나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멸시키고 싶어 하는 나의 업장(業障)입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바꾸고 싶다면,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옴마니반메흠 진언 염송과 함께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인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끊임없이 이어 가면 됩니다.

염송과 알아차림은 금강정좌를 하고 수인을 맺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밤에 잠이 들기 전까지 쉬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기로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채우지 못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몸과 마음을 통해 알아지는 것들이 탐심과 진심으로 인해 애착이 생겨나고 고통이 생겨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고통인지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바른 수행은 마음에 탐진치가 줄어들게 합니다. 염송 수행을 오래 해도 어렵다는 것은 탐진치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진언 염송을 하면 고통이 줄어야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세요. 어떤 탐심들이 있는지 보이는 대로 보세요. 당신의 지혜만큼 탐심과 분노가 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탐진치는 잘 보지만 자신의 삼독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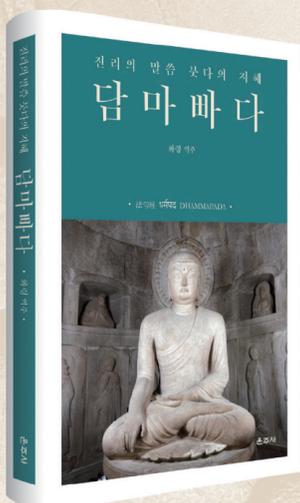
수행은 자신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려고 애쓰는 행위 또한 탐심입니다.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을 많이 주면 힘이 듭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불편하고 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진심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켜보세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해가 완전해지면 하라고 강제해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잘못된 선택은 ‘이것은 괴로움을 주는 선택 이구나’하는 경험을 통해 이해를 깊게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심(下心)하여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수용하세요. 그동안 하던 것과 다르게 해 보세요. 이것이 마음을 바로잡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극락행 비행기 티켓입니다. 옴마니반메흠.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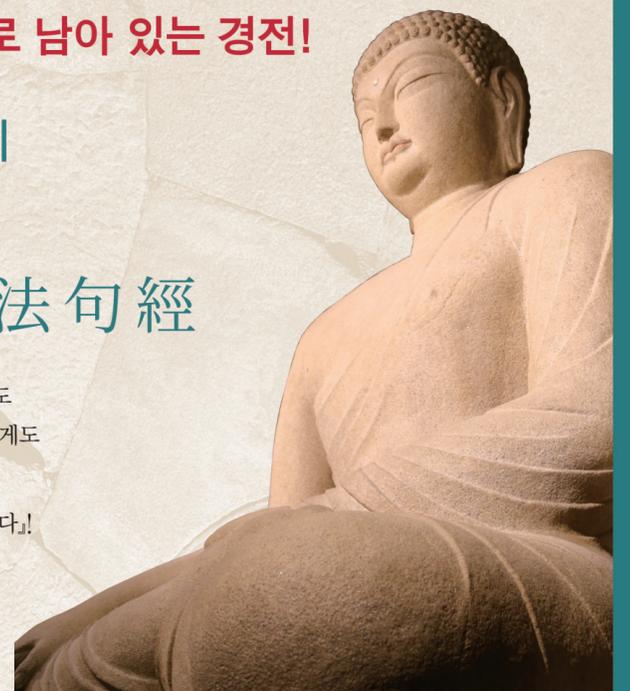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관세음보살 염하던 찰나, 그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기별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8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선은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상하기 시작했다. 서울이 수복되고 38선 너머로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하자 대성사는 더욱 간절히 아들의 소식이 있기를 기대했다. 서울 하숙집에 기별해도 소식을 알 수 없었고, 밀양 출신의 학생들에게 물어 봐도 모두 모른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주변에서는 제삿날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했지만, 대성사는 한결같이 ‘관세음보살’만을 외울 뿐이었다.

언제나와 같이 관세음보살을 염하던 어느 날 대성사는 잠깐 삼매에 들게 된다. 자식을 걱정하던 마음과 두려움이 오롯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또렷이 본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시간이 정지되고 세상 모든 것과 일치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놀라운 찰나를 맞을 때 누군가 급히 대문을 두드렸다. 이어서 금강관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기별이 온 것이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서울이 급격히 인민군 치하에 들어가자 손순표는 피난 시기를 놓쳤다. 하숙집을 나와 학교로 가던 길에 인민군의 검문에 걸리게 되고 이내 의용군으로 징집됐다. 군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급된 군복과 총을 받아 인민군의 남행길에 동참했다. 개인의 의지와 이념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밀양 집으로 연락할 아무런 방도가 없이 다른 인민군 병사들과 함께

남으로 남으로 행군하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거칠 것 없이 남으로 향하던 인민군 행렬이 가로막힌 것은 영천 부근에서였다. 손순표는 고향 집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졌다.

승승장구하던 인민군 행렬에 유엔군의 폭격이 잦아졌다. 행군 도중 비행기를 피해 숨어야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인공기 아래 통일을 이룰 것 같던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에 발이 묶였다. 소위 부산 교두보 전투 또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로 불리는 저항선이 펼쳐졌다. 1950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낙동강을 최후의 보루로 삼은 전투가 벌어졌다. 전쟁 중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이 펼쳐졌다. 포탄이 빗발치고 죽어가는 병사와 상처를 입은 이들이 뒤섞여 대지 위로 붉은 피가 강을 이루어 흘렀다. 당시 낙동강은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피로 물들었다. 산과 들은 포탄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미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소강상태의 전선

은 조금씩 북으로 밀려갔다. 미군은 정밀 폭격과 화력을 앞세운 막강한 전력으로 인민군을 밀어붙였다. 곳곳에서 전선이 흐트러졌고, 국군은 그 틈새를 뚫고 나갔다. 손순표의 앞에는 미군의 폭격이 덮쳤고 뒤에는 후퇴하면 총살이라는 독전대의 독살이 이어졌다. 참호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을 때 전선은 포탄과 총탄이 빗발쳤다. 인민군 대부분은 고립된 채 전선은 고착되고 있었다. 죽음과 삶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잠시 포격이 멎자 손순표는 밀려오는 미군의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된다. 참호 속에 갇힌 그에게 흑인 병사는 총구를 겨누었고, 손순표는 순순히 손을 들어 투항한다. 낙동강 전선 영천 인근에서 손순표는 미 1기병사단의 포로가 됐다. 이때가 1950년 9월의 일이다.

포로가 된 손순표는 일단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옮겨져 전쟁포로의 신분이 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로수용소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다 같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남쪽 출신 북쪽 출신으로 편이 나뉘고, 이념과 신분에 따라 패가 갈렸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내부의 테러와 살육은 전쟁터보다 나을 바 없는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1951년 7월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전쟁포로 문제는 가장 심각한 주제로 떠올랐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해 남과 북으로 송환할 것을 합의하자 수용소 내부는 더 큰 참변이 발생했다. 소위 반공포로를 막기 위해 친공 캠프에서는 날마다 사상검증과 인민재판을 벌였고, 남쪽 출신이던 손순표도 인민재판의 대상이 됐다. 남쪽 출신에다 대학생 신분으로 부르주아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꼼짝 없이 처형을 앞두게 됐다.

한밤중 막사의 창과 문을 모두 가린 채 인민재판이 열렸다. 사상이 의심되고 소위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이들은 한명씩 재판정에 섰다. 이윽고 손순표의 차례가 되자 서슬 퍼렇게 사상검증을 하던 인민군 군관은 변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절해라> 삽화 중에서

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선언했다.

“이 동무는 누가 봐도 반동이요. 인민의 고향으로 호의호식한 파렴치한 적이요. 이런 적은 기회만 생기면 다시 인민을 수탈할 것이요. 더 볼 것 없이 처단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이 동무에 대해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하시오.”

침묵이 인민재판장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아무도 나서서 변론하지 않는다면 끌려가 처형될 위기가 닥쳤다. 이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손을 들고 나선 이가 있었다. 그는 밀양 출신으로 진즉 월북하여 인민군 군관이 된 이였다. 밀양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 대성사와 인연이 있었다.

“그자는 부르주아 출신이 아닙니다. 조부는 독립운동을 했고, 부친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농민과 무산계층에게 혹독한 일을 했던 일도 없고 오히려 가난한 학생의 편을 들고 언제나 나서서 도왔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인민의 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손순표의 운명이 갈렸다. 인과는 알지 못할 때 천사거나 악마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일 그가 나서서 변론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일들은 달라졌을 것이다.

1952년 봄이 되면서 전쟁은 지루한 공방전으로 피아 모두 고착된 전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나아가지 못했다. 1952년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휴전회담이 지루하게 진행됐지만, 북으로 돌아갈 것인지 남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해 4월 손순표는 포로 분리수용 절차에 따라 남쪽 포로로 분류되었다. 남쪽을 선택한 포로들은 거제도를 떠나 부산, 마산, 영천, 광주, 논산 등 5개의 포로수용소로 옮겨졌다. 잔류를 막으려는 인민군 포로들의 정치공작과 압박이 이어졌지만, 운명의 줄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찬불가를 불공의식에 도입해 현대적 불교의식 정착

총지종의 역사

03. 밀엄정도의 기틀 확립
미래지향적인 신행 혁신③

찬불가 창작 및 보급

원정 대성사는 음악을 통한 포교에도 선구자적인 식견을 발휘했다. 1974년 9월 예불가 ‘오대서원’과 ‘회향서원’을 직접 작사·작곡하여 공식 불공과 의식에 도입했다. 1975년 10월 ‘네 가지 큰 은혜’, ‘성도절 노래’, ‘창교가’, ‘보은의 노래’, ‘참회의 노래’, ‘부모의 은혜’, ‘성혼찬가’, ‘왕생가’, ‘자성 일을 지키자’ 등 16곡의 예불가를 직접 작사하였고 이 가운데 6곡을 완성했다. 원정 대성사는 노랫말은 물론 기본적인 곡조를 직접 작곡한 후 서창업 작곡가 등 전문 음악가의 편곡으로 총지종의 교의를 담은 찬불가를 창작·보급했다.

찬불가를 불공의식에 공식 도입함으로써 현대적인 불교의식을 정착하는 데 앞선 모범을 보였다.

포교와 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계는 1970~80년대에 현대적인 찬불가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한 서창업 작곡가는 ‘삼귀의’, ‘사홍서원’ 등 대표적인 불교 의식곡과 ‘홀로 피는 연꽃’, ‘빛으로 돌아오소서’ 등 230여 곡의 찬불가를 작곡한 현대불교음악의 창시자이자 권위자이다.

이처럼 불교음악의 보급과 발전에 헌신한 전문 음악인에게 찬불가의 작곡 및 편곡을 의뢰함으로써 종단 불교음악의 보급과 발전에 힘썼다. 이후 대성사가 작사한 찬불가 가운데 완성하지 못한 10여 곡의 찬불가를 1983년 서창업 작곡가에게 다시 의뢰하여 완성했다.

“대성사님께서 만드신 찬불가 가사들을 보면 낱낱이 알알이 엄청난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창교가’를 보세요. ‘삼계의 중생

들을 모두 건지고 찬란한 거룩한 빛 널리 비추며 대전세계 우렁찬 소리 울리고 시방세계 뻗어갈 우리 총지종, 법계의 사명으로 여기 모여서 금강같이 뭉쳐서 일어난 교단 즉 신성불 대도를 널리 열어서 영겁으로 이어갈 우리 총지종.’ 이 깊은 뜻을 오히려 음률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웅대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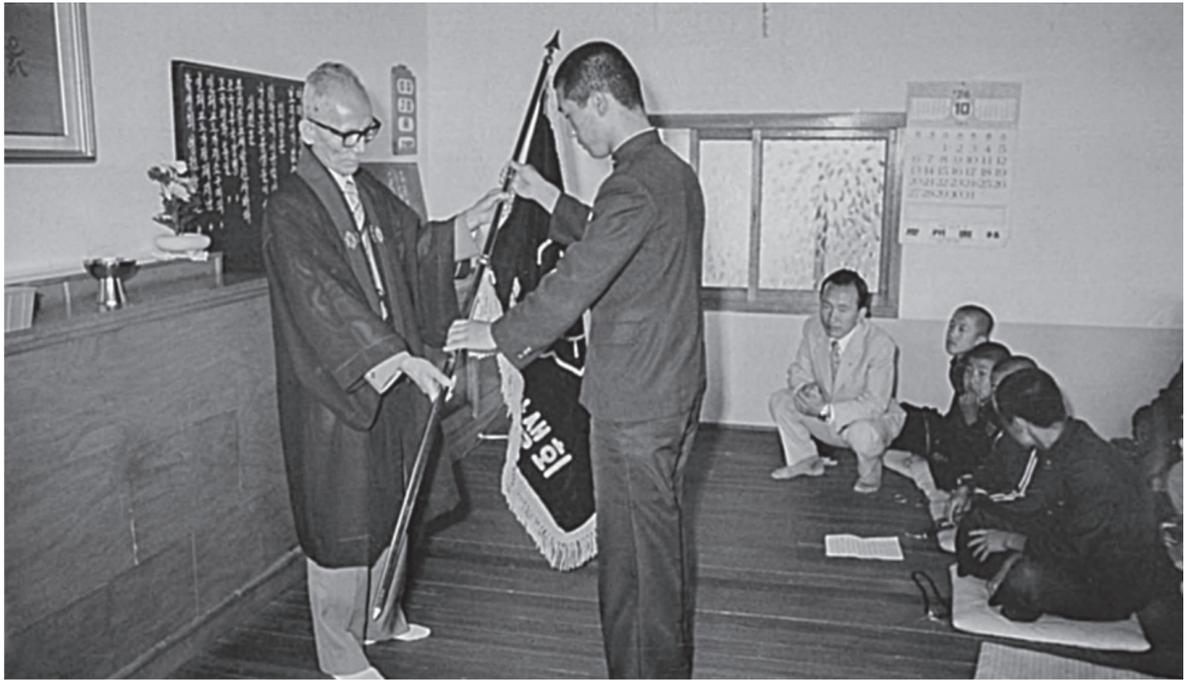
서원당에서 처음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모두들 울컥했지요. 맨 몸으로 방 한 칸 열어 서원당을 열고 이공도 없이 교도들을 모아 불공을 드렸던 때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모든 교도들이 똑같았을 겁니다. 환희와 감동이 넘쳤지요. ‘명왕의 노래’ 등 대성사님께서 작사해놓으신 노래가 많아요. 아름다운 찬불가로 우리가 완성해야 합니다.”

〈불교총지종 50년사 총지화 전수 인터뷰 중〉

종단 찬불가를 집대성하고 종단 의식에 필요한 신규 찬불가를 제작하기 위해 찬불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스승들이 새로 제정된 찬불가의 가장연습을 할 정도로 찬불가 보급을 위해 노력했다. 음악포교에 대한 남다른 열의는 합창단 결성으로 이어졌다.

1975년 5월 24일 서대문선교부에 관음합창단을 결성하고 이를 확대하여 서울경인교구 차원의 연합 합창단을 만들 것을 제안, 1977년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은 대성사가 창작한 예불가를 통해 총지종의 가르침을 전파했으며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종단의 주요 행사를 빛냈다.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도들의 관심 속에서 주요 사원과 교구별로 결성된 합창단은 사원의 교화활동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불공 올리는 지극한 마



전국 사원에 어린이 법회와 중고등학생회 법회가 개설되면서 사원은 활력이 넘쳤다. 1974년 10월 3일 경주학생회 결성식



원정 대성사는 1974년 9월 예불가 ‘오대서원’과 ‘회향서원’ 등을 직접 작사하여 공식 불공과 의식에 도입했다.

음으로 음성포교를 통해 진언밀교의 감동을 전해주었을 뿐 아니라 종단과 교도들의 애경사에 발 벗고 나섰으며 사원에서 행하는 자비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교화를 뒷받침했다.

자성학교 개설

대성사는 총지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975년 10월 29일 제6회 중의회 의결에 따라 각 사원 사

원당에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자성학교를 개설했다. 승천사, 수인사, 정각사, 국광사, 성화사에 어린이 법회가 열렸다.

자성일 법회에 참여한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놀이방과 공부방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담 교사와 봉사자를 배치하여 놀이와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및 불교교육의 장으로 발전했다. 전국 사원에 어린이 법회와 중고등학생회 법회가 개설되면서 사원은 활력이 넘쳤다.

“일요일마다 어머니가 쥐어주신 회사금과 차비를 들고 서원당에 갔어요. 힘들 법도 한데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하라하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지요. 특별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정각사는 어린이 법회와 학생회 법회에 각각 50여 명이 늘 참여했는데요. 연등회와 창교절 행사 때 교도님들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면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법회에 나오는 아이들뿐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데려왔어요. 당시만 해도 현교 사찰에서는 도심에 포교당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활기가 넘쳤죠. 어린이 법회 다니던 친구가 학생회 법회 나가고 청년회 활동하면서 자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의 열기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가장 아쉽습니다. 다시 어린이와 청소년 교화에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교총지종 50년사 인선 정사 인터뷰 중〉

교도의 자녀뿐 아니라 지역의 일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늘면서 자성학교는 밀교교육의 산실로 성장했다. 사원을 신축할 때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자성학교 공간을 배치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교도들의 진언연송 소리와 어린이·청소년 불자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사원은 생기가 가득했다.

자성학교는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고 총지종의 신심 깊은 교도와 스승을 길러내는 창구가 되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 사이즈 가로 25cm
- 세로 15cm
- 높이 15cm
- 정가 60,000원
- 문의 02)552-1080
-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가초(3)

밀교인물사에 달라이라마 14세 성하를 소개하는 것은 인도불교에 밀교가 등장한 이래 세계 인류에 밀교를 가장 많이 알린 인물이 성하이기 때문이다. 성하의 밀교 흥포는 전대 달라이라마 13세인 툽텐 가초의 유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툽텐 가초의 활동기인 근대 티베트는 청말 군대가 주둔하여 사사건건 간섭하였지만 툽텐 가초는 국가체제를 근대화하기 위해 제도와 문물,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였고, 밀교를 대중적으로 전개하려는 혁신적 결정도 툽텐 가초에 의해 이루어졌다. 툽텐 가초는 쯙카빠의 『보리도차제론』을 널리 선양함으로써 불교의 이론과 수행체계를 통일하여 밀교 흥포의 토대를 닦았다. 제14대 텐진가초 성하도 선대의 유시를 계승하면서 쯙카빠의 『연기찬탄문』, 『보리도차제론』을 석존의 가르침을 계승한 현교의 과목으로 중시하였다.

달라이라마 14세는 전통적인 사원교육을 모두 마쳤지만 동시에 정치적 지위가 인정되어 1951년 6월 20일 중공과 티베트 사이에 이루어졌던 17조항의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 내용은 겐로로는 티베트, 중공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공의 티베트침략의 초석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중공의 간섭이 노골화되자 1959년 3월 10일 티베트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봉기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사망했다. 이후 달라이라마 14세 성하의 탈출과정은 지난 호에 게재한 내용과 같다. 이후 망명정부의 조직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인도정부의 도움을 받아 인도 각지에 망명티베트인 거주지를 터전 삼아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사원을 재건하였다.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목숨 걸고 탈출한 약 3만 명의 티베트인들은 북인도 다람살라에는 TCV(Tibetan Children's village)와 도서관을 세웠고, 남인도 후블리에는 겐룩빠의 3대 사원인 간덴사, 대뽕사, 세라사원을 재건하였는데, 티베트고원의 한냉한 고산지대에 살던 티베트인들은 열대정글을 일구는 과정에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망명 이후 달라이라마 14세 성하는 망명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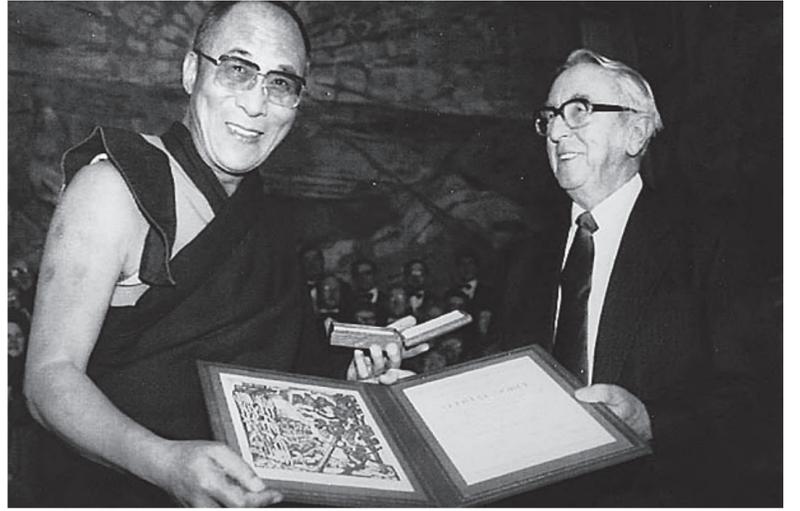
통도사 스님들이 '자유 티베트'를 지지하며 집회를 열었다.

벳사회를 이끈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애를 썼고, 그의 주변에는 링린보체와 티장린보체를 비롯한 도 높은 승려들과 석학들, 특히 강인하고 충직한 티베트인들이 성하를 중심으로 뭉쳤다. 국제사회는 세계 각지에 망명 티베트인들이 정착하도록 도왔고, 1989년 12월 10일 달라이라마 14세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여 받았다. 국제사회의 중공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중공은 성하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일삼았고, 이에 성하는 2011년 3월 제 52회 티베트봉기를 기념할 달라이라마의 정치적 지위 포기를 선언하여 종교와 정치를 명실상부하게 분리하였다. 현대 티베트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헌법으로 '망명 티베트인 헌장'에 기초하고,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한다고 하였다가, 이후 1991년초 '헌법 초안 재작성 위원회'를 열어 새로이 체제를 개편하였다. 총리직은 립상 썩계를 이어 뽕빠 체링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성하는 한국에 대해 대승불교가 성행한 국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성하는 1967년 일본을 방문할 때 한국도 방문하기 위해 특사를 마곡사에 파견하였으나 일정상 성사되지 못하였다. 성하는 미안한 마음을

한국인에게 전하며 티베트대장경 한질을 동국대학교에 기증하였는데, 이것은 성하가 중공을 탈출할 때 목숨을 걸고 가지고 나온 것으로 현재 한 질은 하버드대학교, 인도에 두 질, 나머지 일본에 일부를 기증되어 보존하고 있다. 당시 성하는 일본에서 "나는 지금 불교가 번성하고 있는 국가들을 순방할 계획인 바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도 찾아가 불교학자 및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민이 불타의 가르침에 따라 영원한 번영과 행운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빌며 한국민에 뜨거운 축복을 드리는 인사를 맺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장경은 가로 62cm 세로 16cm의 닥나무지(저지)에 앞뒤로 새긴 전통 티베트대장경으로 전체 무게가 285kg에 달한다. 1967년 6월 14일,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달라이 라마 성하가 참석해 기증식을 가졌고, 배편을 이용해 9월 25일 한국 땅에 도착하였다. 이후 기증된 티베트대장경의 후속연구가 미진한 것을 알게된 달라이라마 정부는 20만달러를 출연해 2009년 12월 동국대학교에서 티베트대장경연구소를 개소하였고, 이후 티베트대장경역경원으로 개편하였다.

아무래도 성하의 행보와 관련해 외교, 정치시사에 치우치게 되었다. 다시 돌아와서



달라이라마 성하는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텐진가초 성하가 세상에 알린 밀교과목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석존의 성도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불교는 석존이 성불을 위해 넘어야 했던 마장을 사마로 요약했는데 이는 온마, 번뇌마, 사마, 자제천마이다. 온마는 식온과 색온의 관계를 간섭하는 마장인데, 이에 대한 밀교수행은 후기 밀교를 중심으로 『비밀집회판뜨라』와 관계가 깊다. 아뢰야식으로부터 육신, 사바세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관조하고 이를 법신, 수용신, 화신의 영역으로 전변하는 수행이 『비밀집회판뜨라』를 중심으로 설해져 있다. 번뇌마에 대처하는 밀교수행은 모판뜨라계의 『짜끄라상와라판뜨라』가 그 중심이 된다. 사마의 경우 '죽음의 신인 야마를 살

해하는 밀교수행'인 『야만따까판뜨라』와 세계를 창조하고 한정해서 유정을 구속하는 자재천에 대처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정복자라 일컫는 『갈라차크라판뜨라』이다. 즉 석존의 성도에 견주어 사마의 대적자로서 대표적인 밀교수행은 『비밀집회판뜨라』, 『비밀집회판뜨라』, 『야만따까판뜨라』, 『갈라차크라판뜨라』의 네 판뜨라로 요약한 것이다. 망명 이후 달라이라마 14세 성하가 티베트인 승속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관정식을 수여하고 법문을 설한 밀교가 후기밀교로서 위의 네 밀교이다.

반면 일상의 수행으로서 네 판뜨라를 요약한 수행은 육자대명왕진언이지만, 지면상 다음호로 미룬다.

삼	밀	관	행	피	시	부	야
다	자	생	로	병	사	구	
도	달	방	아	사			
	항	마	염	송	리	트	리
미	아	화	킹	공			킷
	리	미	크	간			리
태		소	랩	소	디		스
평		유					비
성		목	담	밀	염		트
대	한	민	국	입	시	정	부

11번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교도수행체험당 ③

림프암을 극복하기까지

벽룡사 오기순 교도



저의 각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자님은 평소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을 나름 잘 챙기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특별한 염려를 하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렸는데 보통 때와 다르게 이 감기가 도통 낫지를 않고 두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회한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환절기라 유독 독한 감기에 걸린 모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언제나처럼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해 초등학교 운동장을 달리고 온 각자님이 심각한 얼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숨이 찬지 모르겠어.” 원래는 하루에 열 바퀴씩을 뛰어도 거뜬했는데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못 견디게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각자님은 체중계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것 봐, 몸무게도 줄었어. 밥맛도 없고 계속 속도 더부룩해.”

우리는 날이 밝으면 큰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시숙이 백혈암으로 일찍 세상에 떠났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혈액암은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각자님도 그런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있는 대로 희사를 하고 염주를 한 바퀴 돌린 다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변잡한 분위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얀 이불보에 싸인 아기 하나를 저에게 안겨주는 꿈이었습니다.

이불보를 들추고 얼굴을 확인하는데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이가 동그란 눈을 제게 맞추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이게 아주 흥몽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검사만 쉬지 않고 했습니다. 검사라는 것이 거듭될수록 각자님도 지치고 저도 지쳤습니다.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각자님의 몸무게는 전보다 더 빠져서 아주 훌쩍해졌습니다. 각자님은 림프암이라는 진단을 최종적으로

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각자님 걸 보조침대에서 숙식을 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집에 들려 옷가지와 필요한 잡다한 것들을 챙겨 나오곤 했습니다.

집 앞에 소철이 한 그루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에 들르니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상태를 살펴보니 개미 떼들에게 시달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소철의 몸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어서 개미집을 지어놓았습니다. 저는 수돗가로 달려가서 수도꼭지와 호스를 연결하고 찬물을 가장 세게 틀었습니다. 물줄기를 쏘아서 개미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서로 웬일인지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서도 소철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각자님을 위한 불공을 할 때에도 소철 불공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를 때가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소철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소철은 기적처럼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각자님도 소철처럼 가뿐히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 우리 집에서는 소철을 각자님 나무라고 부른답니다. 물론 소철은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불공을 꾸준히 하였고 그중에서도 조상불공에 특히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본격적인 항암치료도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약을 투여 받고 주사를 맞고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직 치료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상으로는 암세포의 절반 정도는 나가떨어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이 기세를 몰아붙여 다음 치료를 서둘러 하자고 했습니다. 2주 정도 항암치료를 더 한 다음에도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각자님은 퇴원을 했고 통원치료를 암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저와 각자님은 열심히 불공을 하였고 그 뿐 아니라 각자님은 나름의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저는 음식에 신경을 쓰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성일은 반드시 지켰고 집에서 불공을 할 때에는 꼭 소철을 한 번씩 쳐다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의사로부터 암세포가 거의 다 소멸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결과는 항상 좋았습니다. 림프암을 판정받고 현재 5년이 지났으니 이 정도면 완쾌나 다름없습니다. 당시에는 겁이 나서 암이 몇 기인지도 묻지 못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님은 암 4기였습니다. 림프암은 신체의 다른 일부로 암세포를 전이시키는 데 특히 강점을 가진 암인데 각자님의 암은 어디에도 전이가 되지 않은 게 특히 신기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각자님은 아침, 저녁으로 불공을 꼭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불공을 하면서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었습니다. 암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나아졌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에 대한 염려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불공에 대한 열의가 있으니 크게 두려운 것은 없답니다. 암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무섭고 두려웠으나 이제는 고맙기도 합니다. 어쨌든 완치가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각자님이 불공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함께 부처님의 가피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칩니다. 성도합니다.



영화 ‘벤허’를 통해서 배우는 건강한 리더십

한 중견 언론사 기자가 고 이견희 회장의 살아생전에 오늘날 삼성 그룹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신화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기자의 질문에 이견희 회장은 뜻밖에도 ‘벤허’라는 영화 이야기를 꺼냈다.

‘벤허’는 1959년 미국에서 개봉된 서사 영화다. 영화의 내용은 예루살렘 제1의 부호인 벤허는 신임 총독이 부임하는 날 총독 암살 혐의로 어릴 때 친구인 로마군 사령관인 메살라에게 기소를 당해서 노예선으로 강제 이송을 하게 된다. 천신만고 끝에 노예선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주고 자유의 몸이 되어 귀향을 하게 되었으나 그의 집은 폐허가 되었고 자기 어머니와 누이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율분에 찬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벤허는 메살라와 함께 전차 경주에 참가하여 그를 죽이고 가문의 원한을 갚게 된다.

이 영화에서 이 회장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차 경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게 되는데, 이야기 속 전차 경주에서 자기의 친구인 ‘메살라’는 말을 길들이기 위해 채찍을 가지고 경기에 참가하는데 반해, ‘벤허’는 어떤 도구나 채찍 없이 경주에 참여하여 승리를 하게 된다.

‘벤허’가 경기 전날 밤 마구간을 찾아서 네 마리의 말들과 대화를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벤허’의 4마리 말은 모두 하얀색의 말들로 구성되어있고 말마다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벤허’는 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호명하면서 말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결전을 앞둔 말들에게 전차 경주의 전반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말도 잊지 않았고 격려까지 아끼지 않았다.

전차 경주에서 벤허는 말들에게 “전차

경주는 경기장을 아홉 바퀴 도는 경기란다. 우리는 여덟 바퀴까지는 2등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아홉 바퀴째에는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해서 1등을 확 따라잡는 거야. 자신 있지? 그래야, 우리 이길 수 있어!”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렇게 일일이 교감(交感)을 나누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은 벤허가 말들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일일이 세밀하게 살펴서 이 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 점이다. 이 말들 중에서 속력이 빠른 말은 외곽으로 배치하고, 빠르진 않지만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말은 제일 안쪽으로, 끈기가 있는 말은 중간에 배치를 한 것이다. 결국 이런 전술적 배치가 바로 4마리 말들로 하여금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강력한 팀 파워를 이룰 수 있게 하였으며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게 만든 요인이 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삼성이 전 세계적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토대이자 초석은 바로 고 이견희 회장이 말하는 영화 ‘벤허’에서 터득한 소통과 배려심의 리더십 및 적절한 인재의 발굴의 극대화의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채찍 없이 동물의 마음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벤허’의 소통하려는 마음과 교감의 정신은 물론, 각자의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 철학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내면까지도 움직이게 하는 소통과 배려 및 능력을 갖춘 인재 발굴은 물론 발굴된 인재들의 적재적소의 배치야말로 단체인 기관 이든 학교든 기업이든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2월 21일 ~ 3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Amount, Date, and Total.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to the Buddhist Welfare Foundation.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⑬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문수보살의 경계

송나라 소흥 때(1131~1162) 태위 여혜경이 오대산 중대에 이르렀을 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문수보살의 이야기입니다.

“대감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문수보살을 뵈오려 왔노라.”

“보살을 보면 무엇 하렵니까?”

“화엄경을 보니 이치가 너무 어려워 보살께 여쭙어 알려주시면 소를 지어 해석하고, 세간에 퍼뜨려서 어둠 속의 등불을 삼게 하며, 발심한 이들이 깨닫게 할까 하노라.”

“부처님의 미묘한 뜻은 사리에 순응하여 매우 분명하고, 예전 스님네가 잘 해석하였으며, 심지어 같은 글도 주석한 것이 몇 장을 지나지 않는데, 요사이 주석한 것은 백 권이 가깝도록 많아서 성인의 뜻이 외려 어렵게 되었으니, 그런 것은 대도(大道)를 깨뜨리는 것이요.”

“동자의 얼굴은 그렇게 암전한데, 감히 선배들을 비방하는가?” 동자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대감이 잘못이요. 여기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문수보살의 경계로서 당신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진정한 문수이거늘, 어찌 범부의 망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시오?” 혜경은 그제야 깨닫고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였더니, 동자는 보살로 변하여 금사자를 타고 은은하게 구름 사이로 숨어버렸다.

문수보살의 경계, 즉 부처님의 경계는 어려운 경전이나 논서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봄이 되어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식물은 우리 생존의 필수조건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우리가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물과 숨결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은 모두 나무와 풀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도 가축들이 먹은 풀과 곡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또 토양 속에 있는 양분과 미생물의 도움으로 자라납니다. 만일 태양과 대지와 물과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 때마다 염송하는 공양게송에도 이런 이치가 담겨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깊이 생각해보면 한량없는 부처의 경계, 문수보살의 경계를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앞의 여혜경 대감의 이야기는 『문수사리보살 불찰 공덕장엄경』에 수록된 이야기로 1982년

우리나라 자운 성우스님께서 <문수보살의 거룩한 행>으로 편역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같은 중생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육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육류소비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축산업의 증가로 현재 지구에 사는 동물의 99%가 사람과 사람이 먹으려고 키우는 가축이라고 합니다. 1만 년 전에는 사람과 가축이 전체 동물의 1%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에게 먹일 사료작물을 재배하느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의 밀림이 1분에 1ha(1만 m²)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위기와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자들이 지나친 육식을 경계하고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되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소위주로(채소 소) 적게 먹고(적을 소) 감사하며 웃으면서(미소 소) 먹자는 이웃 종단의 ‘삼소식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사회적으로도 확산하는데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2023 불교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청벚 보살

이수진



© Photo by 민작가의 맛깔난 여행. All Rights Reserved

개심사 청벚나무 가지에 연둛빛 꽃이 눈을 떴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던 것일까
가지 하나 길게 내밀어 법당에 닿을 듯하다
꽃이 맑다
매화나무는 목탁 두드릴 때마다
꽃잎으로 범구를 읊고,
청매화는 동안겨 끝에 심옥의 수피를 찢어
꽃망울 터트린다
저토록 심심(信心)을 다져왔기에

봄이 일주문에 들어설 수 있다
가지마다 허공으로 낸 구도의 길
제각각 가부좌 틀고 참선의 꽃들을 윈다
전각에서 내리치는 죽비소리
제 몸 처대며 가람으로 흠어드는 풍경소리
합장하듯 꽃잎들 맞이하고 있다
법당은 꽃들의 백팔배로 난분분하다
부처가 내민 손바닥에
청벚꽃잎 한 장 합장하듯 내려앉는다

불교서적 월간베스트(3/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Lists 10 best-selling Buddhist books for the month of March.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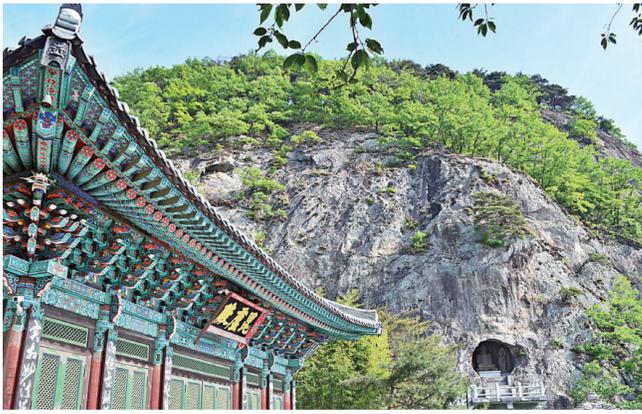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including dates for public services like Gongshik, Jaseong, and Chosotan.

Table with 2 columns: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listing annual observances like Saehae, Sangbong, and Ja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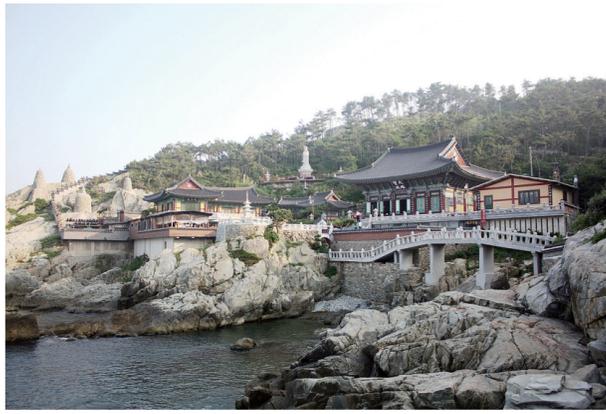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listing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for various Buddhist organizations and temples.

달이 주는 시간의 선물 '윤달', 기도하면 감응하는 달

이달 19일까지, 절 따라 꽃길 따라 부처님 세상으로



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Wikipedia. All Rights Reserved)



부산 해동용궁사(©Dale's Korean temple adventures. All Rights Reserved)

계묘년 올해는 윤달이 든 윤년이다. 음력 2월이 두 번 반복돼 양력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 사이가 윤 2월이다. 윤달은 음력 문화의 산물이자 '달이 주는 시간 선물'이라고 했다. 선조들은 윤달을 일상

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었다. 관장하는 신들이 모든 것을 눈감아 준다고 해서 부정을 탄다거나 액운이 끼지 않는 시간으로 여겼으며, 불교에서는 윤달을 '나와 남을 위해 복덕을 쌓는 시간'으로 승

화시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사찰에서도 윤달에 각기 다른 지역 세 곳의 사찰을 순례하여 자신의 액운과 죄업을 씻으면 복이 온다고 해서 삼사순례를 이어왔다. 얼마 남지 않은 윤달, 조금만 서두

른다면 부처님께 참배하고 공양하는 삼사순례를 통해, 불법인연을 두텁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정진하며 부처님전에서 발심하는 좋은 계기가 될 듯하다. 지방에서 서울로 향한다면 KTX

나 SRT가 가까운 관성사와 총지사 서원당을 가장 먼저 참배할 수 있다. 서울역에서 관성사, 조계사, 길상사로 이어지는 코스는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서역에서 관문사, 총지사, 봉은사 코스도 하루에 충분하다. 조계사는 한국불교 대표 조계종의 총본산이며, 길상사는 법정 스님이 주석하셨던 곳으로 유명하다. 관문사는 천태종 직할 사찰로 무면산 자락의 안온한 귀의처로 꼽힌다. 봉은사 역시 서울의 최대 사찰 중의 하나다.

부산에는 총지종 사원이 특히 많다. 어느 사원을 들려도 불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서원당을 참배했다면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는 해동용궁사에서 조계종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코스(30Km)를 추천한다. 차량으로 40분 이내 거리나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30분 소요된다.

전국의 중심 쯤 되는 충청·전라지역에는 우리 만보사가 있다. 지방 특성상 대중교통 보다는 다중이 이용할 경우는 단체버스 또는 개인 차

량으로 이동이 쉽다. 인근 유명 대찰로는 공주 마곡사와 덕숭산 수덕사가 있다. 주차장에서 사찰까지 이동하는데 편이해 어르신들이 참배하기 쉽다. 만보사에서 마곡사까지 1시간10분(66Km), 마곡사에서 수덕사까지 1시간(60km) 정도 걸린다. 전주 흥국사 쪽을 간다면 후삼국 통일 기념으로 세워진 개대사, 은진미륵부처님의 관촉사를 추천한다.

천년고찰을 가장 많이 품은 대구·경북지역에는 가 볼 곳이 너무 많다. 대구 시내에서 은혜사까지는 차량으로 40분, 이어 제2석굴암으로 불리는 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까지 40분이면 도착한다. 경주를 향한다면 우리 국광사에서 불국사, 기림사로 이어지는 순례길은 더할 나위 없이 경관까지 빼어나다.

공덕을 쌓는 일에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있을 수 없다. 일상적으로 공덕을 쌓기 힘든 중생에게 '윤달'이라는 시간만이라도 한 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

박재원 기자



서울·경인신정회 임원 정기회의

축하합니다

삼일사
3월 16일
이지아 아기 탄생
(지영순 보살 손녀)

서울·경인신정회(회장:박정희)가 지난달 14일 본산 총지사에서 만나 계묘년 첫 회의를 갖고 신정회가 적극적으로 교화발전에 앞서 나가자고 의견을 함께 했다. 또 부처님오신날 맞이 군부대 위문 방문, 연등회 등 일정을 공유했다. 서울·경인신정회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 박정희 △관성사 홍순화 회장, 이정례·박준희 부회장, 이훈강 총무 △밀인사 박수빈 회장, 김옥인 총무 △벽룡사 양재범 회장 △시범사 최인희 회장, 윤혜신 총무 △실지사 박혜선 회장, 황순란·홍정숙 부회장, 이옥분·박순인 총무, 서연희·황성녀 감사 △지인사 전화자 회장, 홍순유·노진숙 고문 △총지사 최영아 회장, 백귀임 총무 △마니합창단 최해선 단장, 김현숙 총무

종립 동해중학교 2023학년도 입학식 거행

4년 만에 대면으로, 6개 학급 신입생 185명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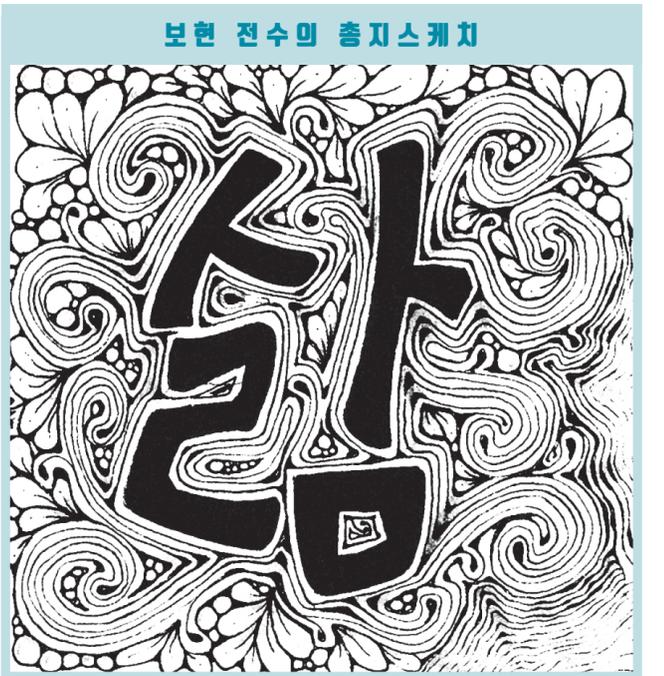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 동해중학교 2023학년도 제56회 입학식이 지난달 2일 오전 10시 30분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입학식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가운데 학교장의 입학허가선언에 이어 학생대표 박준우 군의 입학 선서로 6개 학급 신입생 185명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동해인' 대열에 새롭게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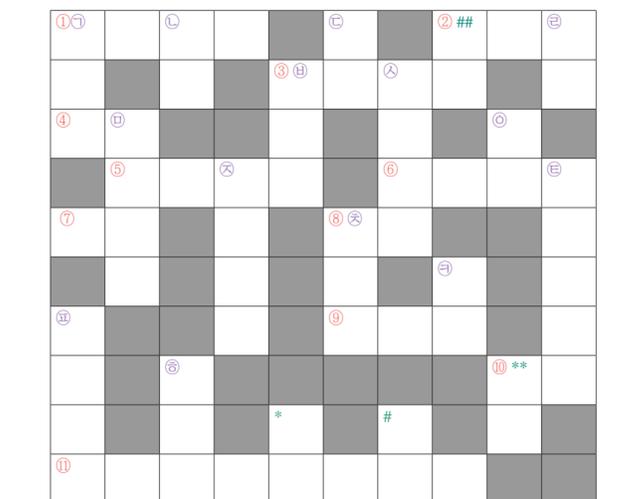
송인근 교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생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교의 비전인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해중학교'에서 건강하게 커나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 학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력향상은 물론, 인성교육, 진로진학교육, 학교폭력에

방교육, 급식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를 신뢰하고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소통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편 동해중학교는 올 신입생부터 정장스타일 자켓의 교복 상의를 점퍼와 후드집업으로 전격 교체했다. 성장이 빠른 청소년기에 불편한 상의를 생활복화 함으로써 성장과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동해중만의 독창적인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애교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다. 점퍼 후면에는 학교 로고와 영문으로 동해중학교(Dong Hae Middle School)를 표시했으며, 오른쪽 팔 부분에 입학년도인 23을 새겼다.



가로세로 총/지/문/답



- 가로 열쇠**
- ① 신밀, 구밀, 의밀 삼밀을 관하는 밀교의 수행
 - ② 오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으로 유명한 도쿄 도시 문화의 중심구
 - ③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 ④ 목표한 곳이나 일정한 수준에 다다름
 - 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후'를 소리 내서 하는 밀교의 대표적인 음성영송
 - ⑥ 인절미라고 불리는 품종의 개, 골든 0000
 - ⑦ 집이나 길을 잃은 아이
 - ⑧ 거대한 고릴라가 주인공인 영화 제목
 - ⑨ 광시곡이자 자유로운 기악곡, 보헤미안000
 - ⑩ ABC주스에 속하는 자주색 야채
 - ⑪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수립한 임시정부
- 세로 열쇠**
- ① 여자, 돌, 바람이 많은 섬, 제주도의 다른 말
 - ② 조개 내부 안쪽 면에 붙어 있는 근육
 - ③ 정신이나 육체가 지쳐서 고단한 상태

- ④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쳐서 베이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구기 종목
 - ⑤ 국보 지정 조선후기에 제작된 풍만한 기형을 가진 대형 백자
 - ⑥ 현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해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
 - ⑦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건강식품, 병아리 머리모양과 닮은 콩
 - ⑧ 불교에서 참된 수행의 결과로 생성된다고 여겨지는 구슬 모양의 유골
 - ⑨ 꽃을 집어 들고 웃음을 띠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 ⑩ 알래스카연안,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는 거친 표면의 큰 개
 - ⑪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장한 인도의 독립운동지도자
 - ⑫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
 - ⑬ 나라에 혼란이 없고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시대
 - ⑭ 가족의 먹거리를 찾아 주기적으로 떠돌아다니며 사는 민족
- * 학교에서 학급을 맡고 있는 선생님
** 코의 염증
남몰래 사정을 살핌, 간첩
그 당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 00저널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기도합니다

총령 법공 기로스승 총지화 최상관 주신제 사홍화 수증원 인법계 원송 공덕성 법계월 지성 진일심 승효제 원당 **현직스승** 법상인 원만원 인선 정원심 수현 묘심해 혜안정 유가해 자심관 화령 범우 록경 정계월 우인 범수연 인지심 금강륜 보명심 행원심 혜원정 승원 묘원화 법일 자행정 서령 덕광 묘홍 지현 보현 정원 법선 서강 법상 도우 혜광 남혜 자성 지홍 도관 일진 진여

서울경인교구 서울경인지회 서울경인마니합창단 **관성사** 김종숙 김종여 박길화 박영자 배동호 신일생 이봉수 이해원 이훈강 홍순화 **밀인사** 경북원 김광혁 김덕자 김성만 김옥인 김용옥 박길선 박은숙 복지원 원행지 유병임 이유정 이해성 이희원 장경임 홍경옥 외 무상회사 4명 **법천사** 법천사신정회 **벽룡사** 벽룡사 교도일동 **시법사** 시법사 교도일동 김금순 김성련 김옥주 김인순 김화순 김희성 민인순 안도영 이덕임 최인희 최임숙 **실지사** 실지사신정회 **지인사** 지인사신정회 강창주 양규선 전화자 정복수

총지사 총지사신정회 박정희 신순덕 유은혁 이인성 백귀임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만보사신정회 강명순 김강미자 김무자 김정희 민순분 박경신 박삼순 박정심 박종순 박현자 배정임 백순이 염미경 염미례 이가환 이원순 이종구 이주영 이태주 임수정 장영이 정유내 정정희 최옥순 최향순 **법황사** 법황사신정회 **혜정사** 혜정사신정회 혜정사정동란회 김경순 김추자 박순희 박영순 이용순 정은선 정혜희 최영례 **중원사** 윤한희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개천사 사부대중 건화사 건화사 교도일동 **국광사** 국광사 교도일동 허명수 허무웅 허정욱 허진욱 **단음사** 단음사신정회 곽병진 권무현 김예지 김옥성 김원석 김해석 신말심 이민구 이태구 전재홍 전형근 정지윤 정태규 최일기 황월분 **수인사** 수인사 교도일동 권오남 김귀약 김예선 김진 김진아 손위호 오진엽 이경화 이귀선 이남이 이은희 이주희 이필선 장정순 정태연 최형분 최형지 한애숙 **제석사** 제석사신정회 김호일 대해정 박희지 반명화 이진승 **부산경남교구** 부산경남지회일동 **관음사** 관음사신정회 **단향사** 단향사신정회 **덕화사** 덕화사 보살일동 **밀행사** 밀행사신정회일동 **법성사** 법성사 교도일동 **삼밀사** 삼밀사신정회 권길 김화자 박옥자 배숙자 우귀연 이두교 이옥자 이현숙 전현자 하명순 허복란 허정남 **성화사** 성화사신정회 **실보사** 실보사신정회 김한남 박금자 조순애 **운천사** 운천사신정회 **자석사** 자석사신정회 장순남 **정각사** 정각사신정회 정각사자비회 강경중 김소연 김윤재 김지안 안시현 이동호 이설희 진명 최영 하나 탁상달 **화음사** 화음사신정회 강점이 서명득 홍남순 **동해중학교** 송인근 김진화 / 김춘자 박순애 무기명

스승 교도 가나다 순

